

환전에 관광팁·원어민까지... 은행 “외국인고객 모셔라”

시중은행, 외국인고객 유치 ‘총력’
외국인근로자 맞춤 특화점포 출점
대림동 중국어... 해화동 필리핀어
지역별 외국인 고려해 원어민 배치

주요 시중 은행들이 늘어나는 외국인
고객 수요에 맞춰 고객 유치에 총력을 기
울이고 있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30만명을 넘
어섰다. 이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지난
해 기준 92만9000명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시중은
행도 외국인 근로자 등 주요 고객층 잡기
에 나섰다.

◆은행, 외국인 ‘특화지점’ 확대

주요 은행은 평일 지점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일요일에도 영업을
하는 외국인 특화 점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먼저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대림동 지
점(외국인 금융센터)을 새로 개설해 기
존 안산, 김해, 의정부, 김포에 이어 전국
적으로 5개의 외국인 금융센터를 운영하

〈시중은행별 외국인 특화점포 위치〉

시중은행	외국인 특화점포 위치
우리은행	▲서울 대림동, 해화동, 광희동, 구로본동, ▲경기 안산, 의정부, 김포, 양주 광적, 화성 발안, 평택, 인천 남동공단 ▲경남 김해
KB국민은행	▲서울 오장동 ▲경기 안산 원곡동, 광주 경안동, 의정부, 화성 발안, 평택 ▲경남 김해
KEB하나은행	▲서울 중구, 구로동, 대림동 ▲경기 일산서구, 김포, 안산 원곡, 평택, 용인, 남동공단, 천안 ▲대구 성서 ▲경남 김해
신한은행	▲ 서울 대림동 ▲경기 안산 원곡, 의정부

[자료=각 사]

고 있다. 또한 각 권역별 수요를 놓치지
않기 위해 광적지점, 발안금융센터, 남동
공단금융센터, 해화동지점, 광희동지점,
구로본동지점, 평택금융센터 등 7개의 일
요 영업점을 운영 중에 있다.

지점 확대로 은행을 방문하는 외국인
고객도 꾸준히 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점마다 다르겠
지만 가장 오래된 안산 외국인 금융센터
의 경우 일요일 기준 분비는 날에는 일 평
균 1000명 이상의 고객이 몰리고 있다”고
했다.

4대 시중은행 중 19곳으로 가장 많은
일요 영업점을 운영하는 하나은행 또한
지난해 12월 명동 외국인근로자 전용센
터를 새로 개설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방

문해 환전·외환송금 등 금융서비스를 받
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관광과 관련
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평택
외환센터를 개설해 기존 안산 원곡동, 오장
동, 경남 김해, 경기도 경안, 의정부, 발안
에 이어 총 7곳의 주말 외환센터를 열었다.
신한은행 역시 안산 원곡동, 서울 대림동에
이어 의정부 지점에 일요외환센터를 개설
해 외국인 고객 유치를 힘쓰고 있다.

우리은행은 각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
인 고객의 특성을 고려해 현지어에 능숙
한 직원을 배치했다. 필리핀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해화동의 경우 필리핀 피크타
이머(Peak-timer)가 은행 업무를 돕고,
몽골인이 많이 거주하는 광희동이나 중

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대림동과 구로본
동의 경우 중국어 통역을 전담하는 직원
이 배치돼 있다.

또한 안산·김해·의정부와 같이 다양한
외국인 고객이 이용하는 지점의 경우 태
국어, 캄보디아어 등 다양한 현지어를 구
사하는 직원을 배치해 원활한 대응을 돕
고 있다.

KB국민은행 또한 은행 창구내 원어민
직원을 배치해 상담을 비롯한 각종 은행
업무를 무리 없이 볼 수 있도록 배려했
고, 은행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외국인 고
객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캄보디
아어 등 비대면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운
영 중이다.

KEB하나은행 역시 외국인 손님들과
의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태국, 스리랑
카, 네팔, 베트남 등 9개국 출신 외국인 직
원들을 채용해 정확한 금융 서비스를 제
공한다.

◆외국인 고객 서비스 강화

외국인 고객을 위한 각 은행만의 특화
된 서비스도 눈에 띈다.

우리은행의 ‘위비 글로벌 패키지’는 국
내 은행 업무가 어려운 외국인 고객을 위
해 만든 외국인 전용 매뉴얼이다. 외국인

고객들의 초기 은행거래 시 가장 필요하
는 외국인 전용 입출식 통장과 체크카드 및
적금, 청약과 같은 기본적 내용을 패키지에
담았다. 또한 각 영업장에서도 패키지에
대한 홍보물을 다국어 언어로 제작해 처
음 은행을 내방하는 외국인 고객의 혼
선을 줄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고객을 응
대하는 매뉴얼이 부족한 일반 영업점에
서 은행 업무를 보기 힘든 외국인을 위해
이 패키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외국인 특화 신용카드
및 전용 적금을 출시하며 외국인 전용상
품 패키지인 ‘KB 웰컴 패키지’를 선보였
다. 외국인 전용 통장·체크카드·신용카
드·적금·해외송금 서비스가 포함되며,
패키지 상품을 보유한 고객이 해외송금
서비스 이용 시 최대 연 0.5%까지 우대금
리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외국인 고객만을 위한 대
출 상품과 적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금
융권 최초로 장기거주 외국인을 위한 전
세자금 대출인 신한 더드림 전세대출과
외국인 전용적금인 신한 더드림 적금을
운용하고 있다.

/홍민영 수습기자 hong93@metroseoul.co.kr



신한희망재단 조용병 이사장(왼쪽 세번째)과 한국장학재단 이정우 이사장(왼쪽 두번째), KCB 강문호
대표이사(네번째), 크레파스솔루션 김민정 대표이사(첫번째)가 지난 30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청년 부채 토탈 케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희망재단 청년 부채 돕는다... 300명에 13억

‘청년 부채 Total Care 프로젝트’

신한희망재단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그룹 본사에서 한국장학재단,
코리아크레디뷰로, 크레파스솔루션과함
께 ‘청년 부채 토탈 케어(Total Care) 프
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취업 후에도 학자금대
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들을 대상으로 생활비 및 신용관리 프로
그램 지원, 직업역량 강화연수 등을 통해
부채 탈출을 돕는 사업이다. 특히 학자금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이 아닌 청년
들 스스로 부채 탈출을 할 수 있도록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한희망재단은 학자금대출을 이용하
고 있는 월급여 170만원 이하의 저임금
취업 청년 중 학자금 대출을 성실히 상환
하고 있는 청년 300여 명을 선발할 계획
이다. 이들에게는 청년 희망 지원금(생활
비 지원), 신용 등급 축하금(신용등급 상
승 시 지원), 직업역량강화 지원금(자격
증취득, 교육 수수료 시 지원), 종합신용관
리플러스(신용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총 1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인
당 연간 최대 322만원 규모다.

신한희망재단 조용병 이사장은 “학자
금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 부채 토탈 케어 프로젝트’ 프로그
램을 통해 내일의 꿈을 더 크게 키워나갈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미 기자 smah1@

우리은행 ‘수수료 면제’ 외화바로 예금·체크카드

우리은행은 31일 ‘카드의 정석 외화바
로 체크카드’와 그 이용금액이 출금되는
‘우리 외화바로예금’을 출시했다.

외화바로 예금은 달러(USD)만 입금
가능하며, 외화바로 체크카드는 해외 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해
외에서 ATM을 이용한 외화 출금도 가능
하며, 해외가맹점 결제와 해외 ATM 출
금시 부과되는 대체료와 현찰수수료는
면제된다.

외화바로 체크카드는 해외가맹점 사
용시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고



객은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외화 현찰을
가지고 다니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홍민영 수습기자

기업銀, 자영업자 대상 1.8兆 초저금리 특별대출

가산금리 없이 1%대 대출 지원 문화콘텐츠 등 유망서비스 업종

기업은행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
해 1조8000억원 가량의 초저금리 대출 상
품을 제공한다. 또 카드매출정보를 바탕
으로 2000억원의 자금을 제공해 신용한
도가 부족한 기업에게도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소
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프로그램 출시
에 맞춰 기업은행을 방문하고, 원활한 프
로그램 운영을 당부, 자영업자 대출상담
을 통해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최 위
원장은 “이번 금융지원프로그램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
업자에 실질적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

도록 해달라”며 “특히 성장 혁신 있는 기
업에 지원해 일시적 자금애로를 극복 성
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기업은행은 1조8000억원 가량의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내놓는다. 가산금
리 없이 기준금리(28일 기준 1.92%)만을
부과해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문
화콘텐츠, 소프트웨어와 같은 유망서비
스업종이나 혁신성장 공동기초품목관련
기업 등 장래 성장 혁신성이 있는 기업이
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7년이내의
창업기업으로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신용한도가 부족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를 위해 2000억원 가량의 카드매출정보
기반대출도 진행한다. 한도는 장래카드
매출대금이나 연 소득금액 산정결과 중
높은 금액으로 제공하고, 보증서 발급금

액을 초과하는 기업은 기업은행 자체 자
금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은 신용카드(BC, 국민, 삼성, 신한, 현대
등) 가맹점 가입 자영업자로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한 기업이다.

이 밖에도 BC카드대금 입금계좌로 기
업은행을 사용하는 가맹점은 매출대금을
주말 공휴일에도 상관없이 입금 받을 수
있다. 대금입금주기는 일반가맹점의 경
우 3.5일에서 2일로 1.5일 단축되고, 영
세 중소기업은 2일에서 1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정부의 금융지원 노력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사와 신속한 자금지원을 부
탁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금융애
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사유리 기자 yul115@

NH농협은행, 맞춤형 스타트업 육성... 1기 모집

‘NH디지털 챌린지 플러스’

NH농협은행은 오는 3월 8일까지 ‘NH
디지털 챌린지 플러스(Challenge+)’에
참여할 1기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NH디지털 챌린지 플러스는 창업 초기
기업이 사업모델을 구체화하도록 지원하
고,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
램을 제공한다. 또 초기자본 투자연계와 멘
토링까지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팅 전문
프로그램이다.

NH디지털 챌린지 플러스는 기본 6개
월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외부 전
문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와 연계한 특
별 육성 프로그램 및 시드투자까지 지원
받는 A(엑셀러레이팅)트랙과 스타트업
의 팀 빌딩 및 성장을 위한 입주프로그램
을 지원받는 B(business incubation)트



랙으로 구성된다. 선발된 기업은 향후 성
과에 따라 입주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농협은행은 선발된 스타트업 기업들이
온전히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홍보,
법률, 재무, 투자 등의 필요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스타트업 기업들은 NH핀
테크 혁신센터에 입주해 농협은행 디지
털부서와 같은 공간에 근무하며, 더욱 기
민한 협업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

게 된다.

이대훈 농협은행장은 “스타트업을 육
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NH디지털 챌린지
플러스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며 “앞
으로도 스타트업 펀드 조성, 창업생태계
확대 등 혁신기술 기반 기업과 상생할 방
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NH디지털 챌린지 플러스에 대한 모집
설명회는 2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안성미 기자